

IEA의 장기 석유수급 전망

IEA (국제에너지기구)가 2000년대 증대되는 석유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OPEC(석유수출국기구)가 급격히 생산능력을 증강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입장에 동조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세계 에너지 전망을 통해 IEA는 기준케이스 유가전망을 배럴당 10달러 이상 낮추어 오는 2005년에 30달러로 예측하고 2010년까지는 안정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이같은 유가수준이 다른 기관의 예측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IEA는 수요에 있어서도 2000년에 7,730만b/d, 2010년에 9,250만b/d로 높게 보고 있다. 한편 중동과 베네수엘라에 의한 공급 비중은 1990년 30%에서 2000년에 40%, 2010년에 거의 50%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PIW사가 지난 여름 2000년까지 세계 석유수요 전망치를 평균한 것을 보면, 7,440만b/d로 IEA 예측보다 300만b/d가 낮았다. 2005년까지 유가 전망치 평균은 배럴당 22달러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New York State Energy Office사가 밝힌 바 있다. IEA의 경우 세계 석유수요는 오는 2010년까지 연평균 1.7%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OECD의 증가율은 0.8%에 불과하였다. 구 소련과 동유럽의 소비 감소 추세는 201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개도국들은 2010년까지 연간 3.5%의 소비증가율을 보일 것이다. 유가가 배럴당 20달러의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세계 석유수요는 오는 2010년까지 9,920만b/d로 증가할 것이다.

세계 석유수급 전망

(단위 : 100만b/d)

		1990	2000	2005	2010	
수 요	OECD	37.9	42.6	43.4	45.2	
	동유럽 및 구 소련	10.0	8.3	9.2	10.3	
	기 타	18.4	26.4	31.0	37.0	
	세 계 총 계	66.3	77.3	83.6	92.5	
		채 고 변 동	+0.7	+0.2	+0.2	+0.3
공 급	OECD	15.9	15.3	14.5	13.8	
	동유럽 및 구 소련	11.8	8.6	9.4	10.6	
	중동 및 베네수엘라	20.0	31.1	36.9	45.4	
	기 타	17.9	20.8	21.2	21.1	
급	Processing Gains	1.4	1.7	1.8	1.9	
	세 계 총 계	67.0	77.5	83.8	92.8	

<자료>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는 주요 중동 산유국과 베네수엘라에게 다른 대체에너지가 경쟁을 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의 가격으로 생산능력 증강을 부추기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이들 국가들이 매장량의 잠재력으로 생산능력 증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자금난과 정치적 난관이 생산능력 증강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을 IEA도 인정하고 있다.

OECD의 원유생산은 2010년까지 210만b/d가 감소한 1,400만b/d로 예상되고, 선진국들의 수입원유 의존도는 수요의 70%까지 확대될 것이다. 특히 구 소련의 서방수출이 동유럽의 수요증대로 현재 200만b/d 수준에서 2000년까지 50만b/d까지 하락하는 등 의존도의 증대 가능성은 더욱 높다. 유가가 배럴당 20달러 수준에서 안정되면 중동과 베네수엘라의 생산은 2010년 5,670만배럴까지 증대할 것이다.

OPEC의 유가인상 유혹과 생산능력 확장 계획을 재검토하게 할지도 모르는 석유소비에 대한 최근의 에너지/탄소세 부과 움직임의 부정적 효과는 IEA에 의해 수치로는 평가되지 않았다. IEA는 CO₂ 방출에 대한 규제와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가격 등에 상대적으로 적은 충격을 주는 배럴당 12달러의 세금 부과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같은 세금부과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으로는 보고있지 않다. 배럴당 12달러의 세금은 OECD의 CO₂ 배출량을 2010년까지 33억톤으로 억제하여, 목표수준인 1990년의 28억톤을 약간 상회하게 될 것이다. 배럴당 36달러의 세금은 CO₂ 배출을 배이상 줄여 29억톤으로 떨어뜨릴 것이나, 어떤 탄소세도 다른 정책수단과 함께 집행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